

우선 이런 세션을 열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 마지막에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말에 뼈를 맞은 것 같지만 거두절미하고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제약사항으로 서로를 잘 모름, 각자의 하드 스킬이 다름, 각자의 소프트 스킬이 다름 등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 저는 서로의 결과물을 잘 모른다는 내용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큰 제약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여럿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프로젝트는 서로의 결과물을 잘 알지 못하고, 이에 따라 부차적인 공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결과물이 소통의 부재로 잘 알려지지 못해 이미 작성한 코드를 갈아엎은 적도 있고, A라는 팀원이 겪은 문제를 B라는 팀원도 겪는 등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서로의 progress를 공유하고, 문제가 있었으면 공유하였으면 해결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커뮤니케이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